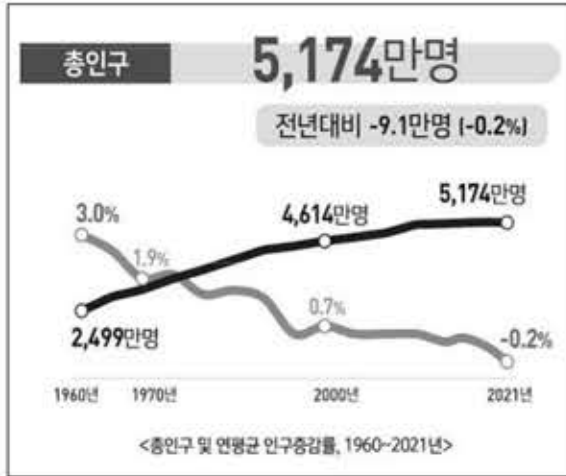


총인구, 정부 수립 이후 첫 감소



▲ 총인구 및 연평균 인구증감률, 그래프=통계청

외국인을 포함한 한국의 총인구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인구는 40만 명 넘게 늘어나면서 생산연령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8일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날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총인구(11월 1일 기준)는 1년 전보다 9만1,000명(-0.2%) 줄어든 5,173만8,000명으로 집계

됐다. 총인구가 감소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이후 72년 만에 처음이다.

인구 성장률도 1960년 3.0%로 정점을 찍은 이후 1995년부터는 1% 미만으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사상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국적별로 보면 내국인(5,008만8,000명)과 외국인(165만명) 모두 4만5,000명(-0.1%), 4만6,000명(-2.7%)씩 줄었다.

연령별로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34만4,000명(-0.9%) 줄어든 3,694만4,000명이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 정점을 찍은 후 작년까지 5년 동안 67만7,000명 감소했다.

반대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41만9,000명(5.1%) 증가한 870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총인구 가운데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3.3%에서 작년 16.8%로 5년새 3.5%포인트 경증 뛰었다.

인구 6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이다. 인구를 나이순으로 줄세웠을 때 중간값인 중위연령도 44.5세로 작년(43.9세)보다 0.6세 올랐다.

고령자가 늘면서 생산연령인구의 부양 부담도 커졌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 비율을 보여주는 노년부양비는 23.6으로 상승했다. 생산연령인구 4.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인 '기대수명' 83.5년 10년 전보다 3.3년 증가

2020년 기준 한국 국민의 기대수명이 10년 전보다 3.3년 늘어난 83.5세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의료 장비와 병상 등 물적 자원이 평균을 뛰어넘었다. 반면 임상 의사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었다.

지난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OECD 보건 통계 2022' 주요 지표별 한국 및 각국의 수준·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국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년이다. OECD 국가 평균(80.5년)보다 3년 길다. 성별로는 여성 86.5년, 남성 80.5년이었다.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14.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회원국 평균(5.9회)보다 2.5배 높았다. 1인당 평균 재원일 수도 19.1일로 평균 8.3일의 2.3배를 넘었다.

건강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과 주류 소비량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은 2010년 22.9%, 2015년 17.3%, 2020년 15.9%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OECD 평균(16%)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주류 소비량도 연간 2010년 8.9ℓ에서 2020년 7.9ℓ로 감소하며 OECD 평균(8.4ℓ)보다 적었다. 반면 15세 이상 인구 중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2010년 30.2%, 2015년 33.4%, 2020년 37.8%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고령층 절반은 연금 못 받는다



55~79세 고령층 가운데 연금을 받고 있는 이들은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령층 10명 중 7명이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6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한국 통계청은 이날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인구 1,509만8,000명 중 연금 수령자는 49.4%(745만7,000명)에 그쳤다. 통계청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비롯해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까지 포함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기준을 근로자 정년인 60세부터 79세까지로 좁혀도 연금 수령자 비율은 66.1%에 불과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9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원 증가했다. 25만~50만원 미만 수령자 비중이 44.4%로 가장 높았고, 15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10.7%에 그쳤다.

고령층 취업자는 877만2,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령층 고용률도 58.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층 취업자의 38.0%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일을 했다. 이들의 17.1%는 도소매·숙박음식업에, 13.8%는 농림어업 분야에 취업했다.

노후 불안에 고령층 인구 중 68.5%에 달하는 1,034만8,000명이 장래에도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인구는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 수준은 150만~200만원 미만(20.9%)이 가장 많았다.

사진=shutterstock/국민연금관리공단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DACA 연장, 드림법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의 시민권 영주권 신청, 밀입국하신 미군 부모님, 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당,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